

# 외국인 근로자 3명 중 1명 월급 300만원 ↑ ... 10명 중 6명 '만족'

### 통계청, '2023년 이민자 체류실태·고용조사' 결과 300만원 이상 월급 35.8%...2명 중 1명 영주권자 취업자별 평균 근로시간 40~50시간 비중 56.5% 근로시간·임금 만족도 높지만 12.3%는 이직희망

우리나라에서 일하는 외국인 취업자 36% 가량은 한 달에 300만원 이상 임금을 받고 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8명은 200만원 이상인 것으로 파악됐다. 10명 중 6명은 직장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지만 임금에 대한 불만 또는 업무 과중, 위험도 등의 이유로 이직을 희망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10명 중 1명 꼴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1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3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5월 실시한 결과를 활용해 국내 체류 외국인들을 체류자격별로 세분화하고, 이들의 한국 생활을 분석했다. 외국인 임금근로자의 임금 수준은 200만~300만원 미만 50.6%, 300만원 이상이 35.8%로 나타났다. 200만~300만원 미만 비

중은 비전문취업(66.5%), 전문인력(53.9%), 방문취업(51.5%), 결혼이민(45.4%), 재외동포(44.3%) 등으로 높았다. 300만원 이상 임금을 받는 외국인의 체류자격별 현황은 영주(51.8%), 재외동포(43.0%), 전문인력(43.0%) 등으로 집계됐고, 유학생은 100만~200만원 미만(44.6%)의 월 평균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체류자격별 취업자의 근로시간은 40~50시간 미만 비중(56.5%)이 가장 높고, 50~60시간 미만(18.1%), 60시간 이상(10.5%) 등으로 집계됐다. 40~50시간 미만 비중은 비전문취업(63.3%), 전문인력(63.1%), 영주(57.3%) 등이 높게 나왔다. 이들은 근로시간과 임금 및 보수에서 각각 56.7%, 55.2%의 만족도(만족+매우만족)를 보였다. 우리나라 직장에 대한 전반적인 만

족도는 62.6%로 집계됐다. 전반적 만족도에 대한 만족 비중은 비전문취업이 71.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어 방문취업(54.7%), 유학생(56.6%), 재외동포(57.3%) 등으로 나타났다. 임금 및 보수에 대한 만족 비중은 비전문취업이 68.9%로 높았고 재외동포(46.4%), 방문취업(47.5%), 영주(47.6%), 유학생(48.6%)은 상대적으로 낮았다. 근무시간은 비전문취업(67.2%), 방문취업(45.3%), 재외동포(49.7%) 등의 만족도를 보였다. 외국인 근로자의 12.3%는 다른 직장으로 이직을 희망했다. 이직희망 비중은 전문인력(18.9%), 결혼이민(16.8%), 유학생(16.6%) 순이다. 이직 희망 사유로는 낮은 임금(39.2%), 업무 위험도(19.4%) 등이다. 외국인의 총소득 대비 부문별 지출 비중

은 생활비(39.4%), 국내외송금(23.2%), 저축(15.7%), 주거비(11.8%) 등이며, 국내외송금 횟수는 연평균 9.8회로 조사됐다. 지난 1년간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한 외국인은 유학생(21.5%), 방문취업(16.3%), 재외동포(14.8%), 영주(13.6%) 등 전체 외국인 대비 13.5%로 나타났다. 이들이 겪는 경제적 어려움으로는 병원비가 부담돼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비중이 35.0%로 가장 많았고, 공공금 연체(27.3%), 본인 또는 가족 학비 부담(22.0%) 등으로 분류됐다. 이행일 통계청은 "국내 외국인의 한국 생활을 분석한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자료가 적극 활용되고 이를 통해 우리나라의 인구·사회·경제 관련 이민 정책 수립에 실질적인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승권기자

## "31가지 곡물·씨앗 넣었다" SPC삼립, '브레드 31' 론칭

### 내달 중 '완두앙금빵', '넛츠베리브레드' 출시 예정



SPC삼립이 건강빵 브랜드 'Bread 31(브레드 31)'을 론칭했다고 17일 밝혔다. 삼립은 최근 건강한 식문화에 대한 소비자

니즈가 높아짐에 따라 31가지 곡물과 씨앗을 넣어 우리 몸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영양 강화 베이커리 브랜드 브레드

31을 론칭하고 다양한 제품을 선보인다. 브레드 31 제품은 치아씨드, 햄프씨드, 귀리(오트), 현미 등의 31가지 곡물과 씨앗을 넣어 고단백, 고식이섬유, 저당 등 건강적인 측면을 강화했다. 이번엔 선보인 신제품은 '31가지 곡물&씨앗 식빵'과 '31가지 곡물&씨앗 프렌치 롤'로 호도와 식물 유래 유산균으로 발효시킨 통곡물 사워도우를 사용했다. 수분 보유력이 높은 햄프씨드와 치아씨드를 함유해 빵의 수분 함량을 높여 촉촉한 식감도 오래 간다. 전국 마트, 온라인(마켓컬리)에서 구매할 수 있다. 다음 달에는 영양 간식으로 손색없는 곡물이 들어간 빵 속에 완두 앙금을 넣은 '완두앙금빵'과 호두, 아몬드, 크랜베리가 들어가 단백질도 풍부한 '넛츠베리브레드'도 선보인다. 신제품은 편의점에서 만나볼 수 있다. 삼립 브랜드 담당자는 "최근 건강한 식단이 화두로 떠오르면서 영양가가 높은 곡물과 씨앗을 활용한 건강한 베이커리 브랜드를 론칭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슬비기자



## 롯데마트, 내달 1일까지 축산·생활용품 반값

롯데마트와 롯데슈퍼가 창립 행사 분위기를 한번 더 이어간다. 롯데마트와 슈퍼는 오는 1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2주간 창립 행사 2탄 '영플 더 큰 세일'을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지난달 28일부터 3주간 진행한 창립 행사 '더 큰 세일'의 호조를 이어가고, 고객 성원에 보답하고자 롯데마트와 슈퍼가 연장 기획으로 준비한 행사다. 특히 롯데마트와 슈퍼는 고물가 시기가 연일 지속되는 만큼 매장 방문객들이 할인 혜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반값 축산, 델리, 생활용품 및 '원 플러스 원(1+1)' 프로모션을 시행해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줄 계획이다. 먼저 롯데마트는 각종 축산물에 대해 반값 할인 행사를 진행한다. 롯데마트는 18일부터 24일까지 1주간, 올해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미국산 소고기 전품목을 행사 카드 결제 시 50% 할인 판매한다. 추가로 '미국산 찜갈비(100g·냉장)'와 '미국산 LA갈비(100g·냉동)'를 행사 카드 결제 시

반값인 각 2290원, 2490원에 선보이고, 1+등급 이상 품질을 지닌 '지리산 순한 한우 전품목'의 경우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50% 할인해 판매한다. '호주산 와규 윗등심(100g·냉장)' 또한 행사 카드 결제 시 50% 할인해 3990원에 만나볼 수 있다. 또한 롯데마트는 나들이 시즌에 맞춰 간편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준비했다. 엘포인트 회원 대상으로 '올 뉴 새우 초밥(20입·팩)'을 반값인 9950원에, '통 달다리살 순살치킨(통)'과 '치킨 듬뿍 샐러드(팩)'는 각 30% 할인한 9030원, 6993원에 선보인다. '한통 가득 탕수육(팩)'과 '한입가득 유부초밥(팩)'은 각 6990원에, '국민맥주 라거팬(500ml)'은 6켤에 9960원에 판매한다. 인기 수산물도 합리적인 가격에 내놓는다. 러시아산 '대게(100g·냉장)'는 행사 카드 결제 시 반값인 3495원에 판매하고 '완도 활전복(특·마리)'과 '통영명게(150g)'는 각 20% 할인해 선보인다. 변용일기자

## 치솟는 분양가에도...청약통장 가입자 2달 연속 늘어

### 지난 3월 2556만8620명...서울·수도권 늘어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 수가 2개월째 늘었다. 17일 한국부동산원의 청약홈에 따르면, 지난 3월 말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2556만8620명으로 전월 대비(2556만3099명) 5521명 늘어났다. 2022년 6월 이후 올해 2월 들어 20개월 만에 가입자 수가 늘어난 이후 2개월 연속 상승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은 지난 2월 597만9505명에서 지난달 598만2012명으로 2507명 증가했다. 이어 ▲인천·경기 4625명 증가(841만2774명→841만7399명) ▲기타지역 2227명 증가(625만7046명→625만9273명)였다. 다만 5대 광역시는 가입자 수가 491만3774명에서 490만9936명으로 오히려 3838명 줄어 들었다. 2010년 이후 매년 늘어나던 주택청약 중

합적저 가입자는 2022년 6월 2703만1911명으로 최대치를 찍고, 7월부터 계속 감소하기 시작해 올해 1월까지 147만명 넘게 빠졌다. 최근 다시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늘어난 데에는 최근 정부가 연달아 내놓은 정책의 영향이 크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월에는 청년 혜택 폭을 넓힌 청년주택드림 청약통장이 시행됐다. 또 지난달에는 청약홈 시스템 개편으로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이 신설되고, 다자녀 특별공급기준 완화와 더불어 부부 중복 청약도 허용되는 등 혜택이 커져 청약 수요가 다시 늘기 시작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과 우리은행 자산관리컨설팅센터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기준 전국 1·2순위 아파트 청약 신청자는 19만8458명으로 전년 동기(8만2558명) 대비

140.4%(11만5900명) 늘었다. 또 아파트 1순위 청약경쟁률도 상승하고 있다. 직방이 한국부동산원 청약 결과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 2월 기준 전국 1순위 청약경쟁률은 4.8대 1로 집계됐다. 이는 전월(0.3대 1) 대비 16배 가량 오른 수치다. 1순위 청약 미달률도 지난 1월 73.8%에서 2월 33.2%로 크게 하락했다. 다만 공사비 상승에 따라 꾸준히 오르고 있는 분양가는 앞으로도 수요자들의 발목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심정석 우대행연구소 소장은 "그동안 신규 분양아파트가 주택수요자들의 많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분양가가 주변시세보다 낮은 '분양가 경쟁력'이 크게 작용했기 때문"이라며 "원가상승 요인이 다수 발생한 최근 분양가는 이미 기존 아파트의 매매가를 추월했다"고 말했다. 서선욱기자

## 모나미, 프리미엄 유성볼펜 프리스펜 3000 프라이م 출시

### 프리스펜 3000 고급화 제품

문구기업 모나미가 '프리스펜 3000'의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담은 프리미엄 유성볼펜 '프리스펜 3000 프라이م'을 출시한다고 17일 밝혔다. 프리스펜 3000 프라이م은 모나미의 스테디셀러 수성펜인 프리스펜 3000을 고급화한 제품으로 금속 재질의 황동을 적용해 모던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연출했다. 기존 수성펜을 유성볼펜으로 바꾸고, 누르는 방식의 노크식으로 재해석했다. 제품 바디 부분에는 얇은 줄무늬 패턴의 헤어라인 공법

을 적용해 금속 특유의 자연스러운 질감 표현을 더했다. 제품은 틴케이스, 프리미엄 유성볼펜, FX 4000 리필심, 제품 설명 속지 등으로 구성됐다. 유성볼펜 바디 컬러는 실버, 에쉬그레이 두 가지로 틴케이스 컬러도 동일하다. 잉크 컬러는 검은색이며 0.7mm의 필기선에 부드럽고 편안한 필기감을 제공한다. 모나미 153 고급 필기구에 사용되는 FX 4000 리필심 1개가 추가 구성품으로 포함된다. 프리스펜 3000 프라이م은 모나미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는 출시 기념 무료 각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뉴시스



모나미 네이버 브랜드스토어에서는 출시 기념 무료 각인 이벤트도 진행한다. 뉴시스

## 이마트 3사, 대형 맥주 행사 '슈퍼비어 페스타'

이마트, 이마트에브리데이, 이마트24 3사가 맥주 수요가 높아지는 본격적인 캠핑·나들이철을 맞아 대형 맥주 행사인 '슈퍼비어 페스타'를 공동으로 진행한다. 이마트, 슈퍼, 편의점까지 채널 별 특성에 맞는 행사를 선보이며, 행사 기간 동안 준비된 국산·수입 맥주 전체 물량만 약 50여개 브랜드의 총 1000만개 물량이다. 먼저 이마트는 오는 1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2주간 인기 맥주 골라담기 행사부터부터 특가 패키지 기획, 과자·델리 연계 할인 등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다. 대표 상품으로는 '크로넌버그 1664 블랑', '써머스비 망고 라임·애플', '브루독 핑크 IPA', '삿포로', '아사이 슈퍼드라이', '기린 이치방' 등 500ml 인기 맥주 7종 골라담기 특가 행사를 선보인다. 해당 인기 맥주 7종을 5켤 구매 시 9900원에 판매하며, 10켤 구매 시 1만9600원에 구매할 수 있다. 10켤 구매 시 캔당 1960원 수준으로 단품 구매 가격인 3000원 대비 약 35%가량 저렴한 가격이다. 맥주와 함께 즐길 수 있는 델리·과자 먹거리 행사와 캠핑용품 행사도 함께 선보인다. 먼저 오는 25일까지 '카스투레쉬(355ml\*6



캔, 9,050원) 동시 구매 시 '폴드포크 피자(약 30cm)'를 정상이 대비 20% 할인된 7984원에, 시크릿양념치킨 2종은 20% 할인된 1만1984원에 판매한다. 트레이더스 홀세일 클럽 역시 오는 28일까지 전점에서 수입맥주 6종 골라담기 행사를 진행하며, 행사 품목 6켤 구매 시(교자 구매 가능) 1만480원에 판매한다. 행사 대상 상품은 '1664 블랑(500ml)', '1664 로제(500ml)', '과올라나 바이스비어(500ml)', '기린이치방(500ml)', '써머스비 애플(500ml)', '쿠퍼스 라거(440ml)' 6종으로, 6켤 구매 시 캔당 1746원 수준에 구매가 가능하다. 뉴시스